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金 一個月 金壹圓(朝夕刊) 廣告料 五號活字一行 …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

社說 歐洲政界의一波紋

一

去月二十三日에英國外相『첸바렌』氏는 그選擧區되는『바아민감』에서 一場의演說을試하엿는대 獨逸이國際聯盟에參加하는데따러서 常任理事國의數爻를늘리는데『贊成하는뜻을發表하엿다 이演說이 內外의物議를이르키게되엿다 保守黨自體內에잇서서도 그를非難하는사람이 續出하게되여 保守黨所屬下院代議士六名은 聯署하야 新聞에投書하야 外相을攻擊하고 下院에잇서서는 外相에게 質問을行하고저 벌서通告를發한일이잇고 上院의空氣도또한樂觀을許치못할바잇서外相은 매우困難한處地에서잇게되엿다

二

『로카르노』條約이締結되여獨逸이聯盟에參加하게되고따러서常任理事의一椅子를 獨逸도要求하게되엿다 佛國은獨逸이常任理事의椅子를차지하게되는것은 認定하지마는 그와同時에小聯合國中의幾個國도그에參加식히려고하엿스나 獨逸의反對로 그것이消滅되엿섯는대 今番에 英外相의입으로 그것을公開하게되여 佛國은有力한支持者를엇고 獨逸은매우困難한境遇에이르게되엿다 그리하야境遇에따러서는 獨逸은聯盟加入請願을取消하리라고한다 獨逸이만일 國際聯盟에加入하지아니하면 安全保障條約이 獨逸에關하여는 效力이發生되지못할것이오 그條約으로因하야 實上『로카르노』條約은 烏有에歸하게될터이니 이러한點으로보아서 英外相의『바아민감』演說은 歐洲의政界에 이르킨 一波紋이라고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三

英國內에서는 이것으로써英國의佛國에對한屈服이라고본다 佛國은 波蘭 西班牙『브라질』等諸國을 常任理事國으로하기를努力할터이니 그와가티되면 그들이佛國의頤使에從하야 獨逸의所爲에反對하게될터이니 그러케되면國際聯盟의精神은어데로가버리고 『벌사이유』精神이支配하게될이라고한다 그리하야 英國의新聞은 一齊이攻擊하는態度를取하고 佛國의諸新聞은 贊成하는意思를表示하엿다 이와가티하야 英外相의이르킨 一波紋은 지금歐洲政界論議의中心點이된感이잇다 그리하야 英國『데일리•뉴스』紙와가튼新聞은 外相이파리와가튼自信을가지고 佛蘭西라고하는거무의줄에걸렷다하고 國王을爲始하야 全世界의 稱讚을바든『로카르노』條約의莊式을助成하는것보담은 速히辭職하는것이조켓다하야 外相의演說을完膚업시攻擊하엿다

四

佛蘭西는『로카르노』에잇서서 獨逸과의宿怨을풀엇다고하엿스나 아즉도內心에는獨逸을除하려고하는생각이잇는故로 獨逸이常任理事國이되면 佛國은聯盟內에잇서서의自己勢力이牽制되는것을感하게되는故로 自國에好意를가진諸國을理事會로끌고들어가려고하는터이다 그러나 獨逸側으로보아서는 獨逸을牽制하려고하는態度에는 斷然從할수업슴으로 그에對하야反對하는態度를 取할것은想像키어렵지아니한바이다 國際聯盟의常任理事國數를增加한다는그問題自體는 理論上으로보아서獨逸서도 그다지反對할것은아니겟지마는 獨逸의國際聯盟參加에際하야 獨逸을牽制하기爲하야하려고하는術策에는 反對하지아니치못할것이다 그러면 關係諸國이 만일『로카르노』條約을維持할誠意가잇다면 獨逸의主張에應從하지아니치못할것이니 畢竟英外相의演說은 一波紋에그칠뿐이고 旣定한歐洲政界의進路를 變更할수업는것이라고보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一切租稅는不納키로宣言
出動한警官隊에게抵抗 西班牙의葡萄栽培業者

(나우엔二十八日發) 獨西通商條約의結果輸入되는西班牙葡萄酒의壓迫을受할것을恐하야此를防禦키爲하야나아간獨逸『모카르』地方葡萄栽培業者는檢擧하려간警官에게抵抗을繼續中인데 一切租稅는納付치안는다고宣言하엿는바警官隊가갓가히가면信號의鐘을亂打하야全部다라나숨음으로巡査는一人도逮捕치못하엿다더라

佛下院、絶對多數로 벅首相案을贊成
로카르노條約批准에

(나우엔二十八日發) 佛國下院은四十九票對四百十四票의大多數로써『로카르노』條約批准에關한벅리안首相의演說에贊成을表하엿더라

獨逸攻擊演說에 ◇…對한獨紙의論評

(나우엔二十八日發) 獨逸新聞은過般『뭇소리니』氏의獨逸攻擊演說을論評하야氏는스사로『포앙가레』氏의禮를習할必要를感하고잇는것과如히其演說도不健全한病的興奮에서나온것에不過하다고觀測하더라

印度『인』大君辭位

(나우엔二十八日發) 舞蹈女子를殺害한印度『인도레』大君은遂히位를十八歲인其子에게讓하엿는데右事件은政府의特別審理委員會에依하야取調되엿다더라

失業五千
智多의最近狀態

(智多二十七日發) 西伯利亞의物資缺乏은依然히舊態와가트며 智多의物價는平均暗價에達하야失業者數는四千八百餘名으로 人口의一割內外이요 牛肉一布度十八錢 麥粉二等物一袋八圓二十錢이다 麥粉은一等品은全無하야三月末에는自然不穩狀態를呈하리라더라

勞働法案委員會

(東京電) 衆議院勞働法案委員會는一日午前十時四十分에開會되야質問에드러가爭議調停法等十九條에對하야淸瀨一郞氏와長岡社會局長間에質疑應答이잇섯는데長岡局長은前回委員會에서調停法第十九條의煽誘의文字는煽導誘惑과同意義임으로修正하여도關係업다고答하엿스나只今當局으로서는答辯을取消한다고고다음藏園三田郞氏(本)는國際勞働條約第九條의規定에關하야質問하고原惣兵衛氏(政)는組合法第三十三條軍人軍屬의禁止又는制限規定에對하야質問後午後零時半에休憩하엿더라

關稅案修正 本黨態度決定

(東京電) 政友本黨政務調査會는一日午前十時半에院內에서開會하엿는데關稅改正에對한態度를滿場一致로左와如히決定하고同十一時四十五分에散會하엿더라

米及正租는二圓小麥은一圓五十錢 麥粉은三圓七十錢、大豆는一圓四十錢、牛肉豚肉鳥卵은現行率대로修正하고澱粉의『마니오가』『오비석크』『타피오카』等三品은馬鈴薯澱粉과同一하게二圓으로修正하고其他의種目은振高幹部에一任하엿더라

郡役所廢止 精査委員會

(東京電) 郡役所廢止에伴한新舊衆議院選擧法改正法律案並稅制整理에關한缺格者救濟施行法律案의樞府第二回精査委員會는一日午前十時부터開會하엿는데樞府側만參集하야同案에對한…

…으로肯定하기어렵다하야困境에陷케하는點에鑑하야政局의危機를釀成케하야重大한政局의結局貴族院審議의模樣을보기로決定하고午前十一時에散會하엿더라

議院法改正案 但書를부처修正

(東京電) 衆議院議院法中改正法律案委員會는二日會議에서政府案을決定하든前은其期間을二十一日로하고停會期間을此에加치안는다는但書를附하야修正할模樣이더라

期成會要求대로 當局에서도充分諒解
問題의安城市擴張案

京畿道安城市街擴張에對하야는諒解를水原土木管區에엇고또는補助費를道當局에맛고저同市區改正期成會長李正鎬氏와副會長前伊三郞氏가二月二十四日出發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前記兩氏는當局에圓滿한承諾을엇고同二十六日歸還하얏다는데市街廣幅間數問題에對하야는現在市街인家屋이櫛比한곳은期成會에서作定한三間幅대로하기로하고其外에家屋이업는空地에는四間幅으로形成하기로하엿다하며補助費에對하야는道當局으로부터下水口補助金三千五百圓만밧게되고鎭川安城間道路修築에用코저하든六千八百圓은밧지못하게되얏다는데李正鎬氏에말을드르면前記六千餘圓은昨年度에도修築치못하게되면卽時該全額을道로부터他項에計入하게되얏슴으로今年度에는엇지할수업는事情이나此를基因하야明年度에는道로부터多大한補助가잇슬듯하다하며前記期成會에서는今般當局과의交涉한顚末報告와今後의方針에對하야協議하엿는바各委員의一致한意見은郡役所의事務廢止又는町村에移轉함은反히事務를澁滯식히고各種의進捗事務와如한것에도益데업시煩雜한手續만要하게되야町村의自… 告와進行方針을討議코자臨時總會를開催할터이라더라(安城)

女子『동우』會 創立一週紀念

端川女子『동우』會에서는陰正月十五日이同會創立第一週年紀念日임으로特別紀念하기爲하야同日午後七時半當地天道敎堂內에紀念式을開催한바觀衆이千餘名에達하야無前의盛況을이루엇다는데各處에서온祝電祝文을朗讀하엿고來賓으로는權恩洙、金南山、薛實棚三氏祝詞가잇슨後그會를代表하야劉貞欽氏의答詞로式을마치고滋味잇는餘興外지잇섯다더라(端川)

抱川郡農會發起

抱川郡에서는今般農事의改良을爲하야趙光植外五人의發起로抱川郡農會를設立하기로되야來三月二十四日當地郡廳構內에서創立總會를開催한다는데一般은來三月五日外지申込하기를바란다더라(抱川)

端川大講演解散
四演士의原稿外지押收 注意中止로結局

咸南端川의唯一한思想團體인端川『하자』會에서講演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二月二十三日天道敎堂內에서第二回社會問題大講演會를開催한바四五百名聽衆이모혀『社會進化理法上으로본靑年運動』이란題로李泰豪氏가登壇하며注意를連呼하는中에서맛을마치고『無産大衆의運命과靑年』이란題로金南山氏가演說하다가結局은中止를맛고『勞資的對立과靑年의使命』이란題로禹正鳳氏가말하다가中止를맛는同時에臨席警官으로부터解散을命令함으로聽衆은憤慨를不勝하야繼續하라는喊聲이震天하얏스며主催側에서는解散의理由를質問하엿스나結局解散되매『靑年의正面運動』이란題로大熱辯을吐하려던吳祚世氏는그만開口치못하얏스며卽時當署로前記三演士를召喚하야長時間訊問이잇슨後四演士의原稿外지押收後放送하엿다더라

戀愛觀 金南山
現代女性의縱橫觀 李泰豪
(端川)

第三回講演開催決議
臨時總會에서

端川『하자』會에서는二月二十四日同會館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고지난번靑年問題講演會의顚末報告가잇슨後來三月七日女性解放紀念日을際하여第三回社會問題大講演會를開催하고女性問題를討論하기로決議하고其他事項을討議한後閉會하엿다는데指定된演士와演題는如左하다더라

◇演題及演士
女子職業觀 吳祚世
未定 金龍三

河東勞農會 農民會로改稱
三週紀念日決議

慶南河東勞農會에서創立三週年紀念式을擧行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同會에서前月二十七日午後一時當地商務會館內에서紀念式을擧行하얏는데金榮斗氏의開會辭로비롯하야金洪完氏의經過報告를마친後河東靑年會代表金桂燦、河東少年會代表車正燮、河東女子靑年會代表趙貞姬諸氏의祝辭와趙東燦、金洪完兩氏의感想談으로聽衆에게만흔늣김을주고이어서臨時議長金洪完氏가登壇하야議事를進行할새決議及任員選擧는左와如히마치고當日午後三時大盛況裡에서無事閉會하얏다더라

◇決議
一、農民勞働分立의件 河東勞農會를農民會로改稱할事

◇任員
執行委員 金洪完 李源基 金燦斗 金永鎬 徐基參 崔守 金敬午 趙東燦 李鍾淳 金守正▲常務執行委員 金燦斗 金永鎬 李源基(河東)

河東勞働臨總

河東勞働會에서는前月二十七日午後三時半에河東商務會館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얏는데金洪完氏의開會辭가有한後臨時議長趙東燦氏의司會로左와如히決議하고同五時에無事散會하얏다더라

◇決議
一、今回河東水利組合工事에對하야水利組合當局者及請負者에게該工事中勞働者에對한保護又는便利를圖할事를交涉할일
一、右交涉은幹部에게一任할일
一、常務委員補選李源基(河東)

大坪靑年講演
警察의禁止로 懇親會로散會

晉州大坪靑年會에서는新春事業으로農村靑年覺醒을爲하야大講演會를去月二十六日에晉州靑年會 高景仁朴泰宣兩氏를招聘하야開催하얏던바突然警察의禁止로不得已하야懇親會로變更하야多數會員의參席으로時代思潮와內外情勢의談話가잇슨後同會의進行方針의諸種問題로散會하얏다더라(晉州)

洪原靑年委員會

咸南洪原郡洪原靑年會에서는二月二十五日同會事務所에서第五回執行委員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洪原)

◇決議
一、洪原靑年總聯盟加盟金支出
一、時代日報洪原支局을本會直營으로交涉할것
一、來三月八日國際婦人데이에紀念的後援할것

兵營郵便新設

咸南羅南兵營은現今戶數가一千餘戶에達한一都市로되야잇서郵便所가업서서一般住民에게莫大한困難을及케할뿐만아니라地方發展上에도多大한影響이有함으로昨年以來로當地面長藤時氏外其他有志諸氏가努力周旋하든바이제야비로서이에對한具體的起案이되야遞信局에納付할規定金出處外지確定되얏슴으로不遠間에實現되리라더라(兵營)

電氣府營을主張
府民의福利를爲하야 群山府民大會에서

前月二十七日午後七時群山府에서는府民大會를當地群山座에開催하얏는데伊藤光三郞氏의開會辭가有한後藤田吉次氏의電氣事業은府營으로하자는熟辯이잇슨後府民의決議한決議文과宣言書及各地電力料電燈料比較調査表를左와如히發表하얏다더라(群山)

◇宣言
群山電氣株式會社의電燈電力料金의不廉한것은世上의定評이잇는바低減을要望하는것은當然하나會社는反省치아니하고甘言利說로一時糊塗할과如하니我府民은更히一步를進하야電氣事業을府營으로目的하고調査硏究를遂하야써群山府民의福利를增進코저함

◇決議
一、群山電氣問題는電氣事業을府營으로하자함은群山府將來의福利保全上百年의大計로認하야調査硏究할事
一、前項調査硏究의結果를發表하기外지群山電氣株式會社의擴張計劃中止를要望할事

◇各地電力料比較(一馬力)
群山二五圓〇〇▲京城八〇〇▲新義州七、五〇〇▲釜山一七〇〇▲大邱二〇〇〇▲元山一三〇〇

◇各地電燈料比較(十燭光)
群山一、〇五▲釜山八五▲平壤八〇▲鎭南浦八五▲木浦一〇

泗川郡幼稚園
開園式擧行

泗川郡에서는幼稚園을新設하고前月二十七日開園式을擧行하얏는데來賓은近藤校長及長脇署長外諸氏와學父兄及兒童百餘名이會集하야郡守卞榮和氏의司會로規則通過와役員을選擧하얏는데當選된任員은如左함(泗川)

◇任員
園長朴理然 副園長劉鎭澤 理事徐泰權 洪台燮 朴南鍾 評議員具性祖 高鎰潤 黃潤爵 黃昭柱 朴南淑 金奉秦 黃厚淵 姜源錫 朴東善 朴東稙 顧問卞榮和 近藤守光 崔演國 黃鍾羽 尹玄求 諸氏이더라

말마다法言警句
關西雄辯의大盛況 兩日間繼續한長廣舌

宜川文友會主催와西關體育後援의關西懸賞雄辯大會는豫定과如히二月二十六日下午七時宜川公立普通學校講堂에서開催되엿는바參加演士가十五人에達하야一日中으로는終了할수업게되야二日間繼續케되엿는바聽衆五百餘名으로大盛況裏에各辯士의時宜에適合하고精神을喚醒하는法言警句가多하얏는데特히『朝鮮民族은朝鮮民族의處地에서覺然警醒하야個人的觀念을버서나民族的團結을肇하자』는韓明龍氏의말과『朝鮮도高貴한犧牲的눈물을要求한다』는金又說氏의말과『모든問題의根本된經濟組織의矛盾을革新하자』는張國鎭氏의諷刺的言說과『죽어도살어도오직朝鮮영을부등켜안코 싸우자』는朴永勳氏의말과『大同團結로將來를開拓하자』라는金炳龍氏말과其他여러辯士의말은節節이現下社會에對하야實로頂門一針이라할만하얏고大會는圓滿히進行되엿는데各演士와演題는如左하다더라

◇演題와演士
朝鮮民衆아覺醒하자 宜川 韓得龍
눈물의精 龍岩浦 金又說
우리靑年의急務 平壤 張國振
바라는新生活 宜川 金良善
衣食住를다오 新義州 金正瑞
어데로갈가? 宜川 朴永勳
光陰을앗기자 嶺美 朴始一
同情의土臺 姜世雄
무엇보다急務는產業振興 定州 盧寅鐵
世界의大勢와朝鮮의將來 成川 金炳旭

上記와如히二十七日下午四時半外지大會를마치고審判金麗楨博士金夏源朴春根先生으로부터一二三等의判決이잇섯는바賞品과受賞者는如左하다더라

◇受賞演士
一等 金메달 金良善君
二等 銀메달 張國振君
三等 銅메달 韓得龍君
(宜川)

老隱公普學藝

忠州郡老隱面公立普通學校에서는二月…

啄木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少年과酒毒

◇나는近日엇던친구로부터놀라운소문을들엇다 그것은다른것이아니라安岳邑內에잇는여러술집에는밤이면 十四五歲의少年들이만히 게집을희롱한다는말이다 그中에도나를더욱슬프게한말은그少年들中에는往往小學校五六學年의生徒가잇다는것이다

◇이말은數年來로稱稱들리던소문이엿스나나는그말을밋고키아니하얏섯다 그러나이제또그친구의말을드르니이것이十分事實인듯십다 이엇지놀라운일이아니며슬픈일이아니랴!!!

◇사랑하는安岳小學生諸君! 諸君이果然술을조흔것으로알고 먹는가? 또는 一時的好奇心으로그런자리에나가는가? 이것은그래여머당을뜻고키아니하거니와諸君이여! 諸君은밝은생각은호반몸의所有者가되여야할것이아닌가? 諸君은조흔머리와굿센精力의所有者가되여야할것이아닌가? 諸君은만흔鐵과智의所有者가되여야할것이아닌가? 그리하야諸君은高貴한人格者를일우어야할것이아닌가? 그러라면알콜의毒을멀리하지안으면안될것이다

◇나는諸君을甚히實하고저아니한다 그것은諸君이일즉家庭에서는靑樓에出入하는父兄을對하엿고社會에서는酒肆에出入하는長上을對하엿스며學校에서도또한그러한校長訓導를對하엿슴을내가잘아는外닭이다

◇그러나諸君아! 諸君도그들과가티썩고키하는가? 아니다! 우리는그中에서도아나는보암직한새싹이되여야할것이다? 우리는함께맹서하자! 굿게盟誓하자! 『나는술을마시지안켓다! 죽는날까지 그리하야나의피로맛을즐기지아니한다』고외치라라피가되게하자! (安岳 南山生)

女高期成會創立
釜山有志百餘人이

釜山道立女高期成會는二月廿三日午後二時釜山靑年會館에서市民有志百餘名이모혀釜山道立女子高等普通學校期成會創立總會를開하고金局泰氏가同會趣旨와大正十三年以來各關係者에서交涉한顚末을報告하고規約은發起會의起草대로通過되엿다는데그中會員資格은三種에分하야特別會員은金一百圓以上贊助會員은金十圓以上普通會員은金一圓以上寄附者로하며任員은專務委員一人과會計委員一人과評議委員四十七人을選定하야本會의目的事業이完成될時外지會務를進行하기로하엿는데委員은如左하다

◇委員
專務委員金局泰 會計委員魚大成 評議委員金亨七、林炳稿、李琪洙、金台振、鄭德浩、金成根 金文培 李殷雨 張良沃 金永信 王梂淳 吳南根 金泳弼 李有石 金中浩 具德汝 金華楠 崔浩威 文尙宇 宋泰昇 金準錫 尹炳浩 安熙濟 崔豪組 金升泰 秋文守 魚允光 徐相灝 崔天澤 金正守 丁士中 田峡 吳 李鄕雨 安命煥 金龍鎭 丁大 李喆鎬 權仁壽 金顯明 金容瑾 金漢奎 金昶燮 金聖濬 權寧圭 朴琪弼 李秉鉉 吳澤等四十七人(釜山)

泰仁衡平臨總

泰仁衡平分社에서는前月二十五日臨時總會를열고京城本部에서出張한李秉煥氏司會下에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泰仁分社事務擴張의件
二、京城本部建築費에關한件 其他(泰仁)

武陵里幼稚園
四月부터開園

江原道伊川郡龍浦面武陵里에서는十歲以上兒童은邑內普通學校에通學할수잇스나幼兒들은邑內幼稚園에보낼수업슴으로이를遺憾히하던바李益煥、崔相璘、張斗煥外諸氏의發起로各自資金을支出하야幼稚園을設立하고來四月一日부터開學케한다는데一般里民은氏에對하야稱頌不已한다더라(伊川)

革新總會
組織討議中 警察이解散 碧城勞農會

海州碧城勞農會는創立된지三年에海州勞農運動에不少한貢獻이잇섯든바그동안責任者들이各地로散在하야累一年間同會의存在外지도아지못하게되야甚히遺憾이든바一部會員들이協議한結果朝鮮勞農總同盟의旣定方針에依하야各部門運動을專門的으로組織코저二月二十七日當地海州靑年會館內에서革新總會를召集하얏는데李仁秀氏의司會로會名을『海州勞働同盟』이라變更하고都市의勞働者만을網羅하고其他는各其部門的團體를組織한다는等의改革案을通過中臨席警官으로부터이總會는公然히階級意識을注入하야公安을防害할念慮가잇슴으로이를解散한다命하야不得已當日은解散되고말엇는데規約通過及委員選定은다음總會에미루기로하얏다더라(海州)

井邑 技工同盟
創立總會

井邑技工同盟의發起는旣報한바어니와同會員五十餘名은二月二十七日同邑內井邑靑年會館에서創立總會를開催하고臨時議長李寬鎔氏의司會下에經過報告와規則通過委員選擧를마치고安泰日氏의感想談과安舘洙氏의祝辭가잇슨後萬歲三唱으로閉會하엿다는데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決議
一、會員의親睦을爲하야哀慶相問의件에關에는三十錢의表情으로哀에對한儀儀는委員會에一任하기로함
二、會의經費充用을爲하야會員으로서二十錢式의月捐金을負擔하기로함

◇委員
李寬鎔 李相大 安舘洙 車治局 朴景植 殷熙一 崔泰永 李炳鎬(井邑)

中和農村靑年 永新組合創立

中和郡水山面銀口里燭風會에서는本會가組織된지爾來七個年間에一般農民의啓發에努力하던바二月十七日에는有志靑年百餘名이當地天道敎宗理院內에會集하야生活經濟의便宜를圖코저本會會長尹泰弘氏司會下에永新組合을創立하엿는데燭風會의基本金과組合員의口金賣合하야總額이벌서一千五百餘圓에達하야當地一般農民의一大金融機關이되얏스며날로組合員이增加된다는데任員은左와如하더라

◇任員
組合長李秉杰 幹務李鐘衡 幹事員李秉衡 宋用國 李浩 李彥九 監察員尹鉉弘 李寬衡 李錦衡 劉文哲(平壤)

甕津郡靑聯創立
二月廿五日

黃海道甕津郡馬山面溫泉里에잇는甕津靑年會에서는靑年聯盟을發起코저活動中이던바同郡內에잇는五個靑年團體(甕津、蘇江、康翎、院山農靑、當賢農靑)代表二十餘人이二月二十五日甕津靑年會館에모히여創立大會를開催하얏는데祝辭가잇슨後臨時議長與仁泳氏의司會로柳秉哲君의規約草案朗讀이잇슨後若干의修正을加하야이를通過하고執行委員選擧가잇슨後討議事項及其他는其翌日臨時大會로미루우고當日은閉會하고其翌日繼續開會하야圓滿히閉會하얏다는바被選된執行委員及討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決議
一、靑年運動에關한件
二、農村問題에關한件
三、漁場問題에關한件
四、婦人問題에關한件
五、少年運動에關한件
六、衡平問題에關한件

◇執行委員
常務 庶務 柳秉哲 姜喆熙 成甫京 敎務 盧璽培 朴東醫 社會 趙基元 成弼永 李承根 韓世東 全世賢 白樂英 李京鎬 吳仁泳 安連吉 金永一 崔炳祚 韓天鎬(海州)

三水公普同窓會
第九回定期總會

二月二十一日三水公立普通學校同窓會第九回定期總會에서는左記任員改選과討議가잇섯다더라

◇新任員
會長趙寅河 副會長李翰輕 書記韓商郁 會計禹昌龍 朴尙烈 幹事李成浩外四人

◇討議
一、財産整理及維持方針(三水)

◇龜城靑年演劇 平北龜城郡邑內靑年一同은正月十四日當地天道敎堂內에서演劇을하엿다고(龜城)

殷山查經會

平南殷山市耶蘇敎會에서는二月二十四日…

元山本社支局 『명랑구리』映畫
讀者에게優待券

本報通讀의『명랑구리』活動寫眞이마참來元함을機會하야元山支局에서全市愛讀家의慰安을圖할目的으로本月二日下午七時同樂座에開演할터이라는데料金은讀者에限하야一般의半額(四十錢)로提供할터이며讀者優待券은二日附本報에揷載하얏사오니此를割取하야持來함을要求한다더라(元山)

『명랑구리』映畫讀者優待券

優待日時	三月二日下午七時 一枚一人通用
場所	同樂座
入場料	一般의半額
	本社元山支局

地方經濟
二十七日元山物價

元山客主組合에서調査한二月二十七日元山市場物價는左와如하다고 糯米一斗上品四圓四十錢、同中品四圓三十錢、同下品四圓二十錢、白米一斗上品三圓六十錢、同中品三圓五十錢、同下品三圓四十錢、稗上品一斗二圓五十錢、同中品二圓四十錢、同下品二圓三十五錢、粟一斗上品二圓、同中品一圓九十錢、碎米上品一斗二圓四十錢、同中品二圓三十五錢、同下品二圓卅錢、大豆一斗上品二圓、同中品一圓九十錢、小豆一斗上品二圓四十錢、同中品二圓三十錢、同下品二圓二十錢、明太二十尾上品九十錢、同中品八十錢、生牛牡一頭上品百二十圓、同中品九十圓、同下品六十五圓同牝一頭上品百圓、同中品七十五圓、同下品四十圓、豚在來種一頭上品十一圓、同中品八圓、鷄在來種一首上品九十錢、同中品八十錢同下品五十五錢、同收良種一首上品一圓五十錢、同中品一圓二十錢、鷄卵一個上品四錢五厘同中品四錢、同下品三錢五厘(元山)

馬山魚市
廿六日市勢

近日馬山魚市場은靑魚(鯡魚)의賣買가每日十餘圓의取引高를擧하는바昨年에比하면約六割可量에不過하며一般的으로不景氣함으로多數의仲商人側에서는金融上不少한不安에잇다는데二月二十六日現在의市勢는如左하다더라

◇重要物
▲浦項靑魚上每同六十三圓同中每同五十圓下每同四十五圓以下▲浦項生大口上每尾三十五錢同中每尾三十錢同下每尾二十三錢▲甫石魚上每束一圓三十錢以上同中每東八十錢以上同下每東五十錢以下▲眞石魚上每東四十錢同中每東五十五錢同下每東七十錢以下▲浦項鹽大口上每尾四十二錢同中每尾五十錢同下每尾三十錢以下▲昌原、統營、固城等海產上每尾三十五錢中三十錢▲元山明太上每個(三十級)三十八圓同中每個三十五圓五十錢同下每個三十一圓以下▲桶大口上每尾四十錢同中每尾三十錢以下▲枯大口上每尾四十錢同中每尾三十三錢以下▲蛤子上每同三十六圓同中每同三十圓上每同二十六圓以下▲白文魚上每東七圓五十錢(特大)同中每東四圓五十錢同下每東三圓五十錢以上▲皮文魚上每東一圓三十錢同中每東七十錢以上▲統營海衣(김)上每通大圓以下同下每東七十錢以下▲河東海衣上每通四圓(特上)同中每通三圓五十錢同下每通三圓以下▲巨濟島甘菫上每丹一圓五十錢同中每丹一圓十錢下每丹一圓以下(馬山)

普成校寄附續報

龍川郡楊市普成學校寄附金募集成績이良好하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第三回로寄附人士의芳名을들건대如左하다더라

金信祐 金志賢 崔榮吉 各五十圓 朴景祿 白昌翰 林炳豹 金基潤 各四十圓 李道根 張德燁 李文浩 崔洛瑞 各三十圓 崔基守 二十五圓 張德煥 崔鳳瑞 鄭寅鎔 李得鉉 欄永吉 高在善 金官洞 張斗潮 金成一 梁基甸 黃龜鶴 金賛甫 各二十圓 白洛鱗 文三喜 崔承五 金鼎旭 各十五圓 金鍋泰 張巖漢 李基枋 鄭亨俊 陸玉堂 張昌貞 白玉成 李承欽 李宅仁 原田祐之 李亨祚 張啓鍵 鄭桂守 劉夢現 崔錫振 李允祐 金尙祐 白洛弘 朴東熙 崔在巡 洪錫禹 李京基 金炳鍊 各十圓 累計三千十五圓(楊市)

◇文堂相愛會組織 瑞興郡寧海面元邱洞에原籍을두고現今大邱高等普通學校에通學하는南建模는同志金定在、崔楨、李定源諸氏로더부러前記學生의노동으로四五年間長歲月의學業을繼續하야今春에이르러榮譽의目的을達하게것슴으로그功을萬分의一이라도不忘코저崔波氏의詩號文波를取하야文堂相愛會를組織하얏는데任員과會員은會長南建模、幹事崔楨、金定在、崔栢 通常會員崔快俊、崔聖述、崔大楠、崔楝、特別會員金喜俊、李定源、崔永達、崔洪諸氏라고(瑞興)

地方人事

▲鄭琪燮(本社尙州支局長)氏는支局用務를帶하고三月二日發上京(尙州)

◇市民大會延期 旣報=沙里院電氣問題로二月十八日午後一時普通學校內에서市民大會를開催키로可決되엿던것이엇던事情이잇서서延期하엿다는데아즉日字는未定이라고(沙里院)

◇寸鐵◇

【洪原】요사이洪原普通學校에서는술먹은學生을退學식히기爲하야學父兄大會를開催하려고한다든가? 그學生들이어데서배운버릇인것을調査부터하지

【邑平】大德面柿木里에서는近日阿片患者가發生한以後로는『고무신』을일허바리는外닭에신발을뭉켜들고가는風俗이생것다나

【松禾】蓬萊面水橋市場은날날이發展이된다고하더니仔細히보면發展은色酒家뿐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Mar. 2nd, 1926.

Mr. Arnold Bennett's Old-time "Steam Printer"

II

The printing office stood behind the house and shop, and was a nondescript building in an irregular-shaped yard.

The engine, giving glory to the entire establishment by virtue of the imposing word "steam," was a crotchety and capricious thing, constant only in its tendency to break down. No more reliance could be placed on it than on a pampered donkey. Sometimes it would run and sometimes it would not run, but nobody could safely prophesy its moods.

In the office there was, besides a comparatively modern machine, one that was at least eighty years old.

In construction it carried solidity to an absurd degree. Its pillars were like the piles of a pier. Once upon a time it had printed a Reform newspaper, at Stockport. "Now after thus participating in the violent politics of an age heroic and unhappy, it had been put to printing small posters of auctions and tea-meetings. And "these printed things showed to what extent Darius Clayhanger,s establishment was a channel through which the life of the town had somewhat to pass.... It was impregnated with the human interest; it was dusty with the human interest; its hot smell seemed to you to come off life itself, if the real sentiment and love of life were sufficiently in you.

For some white-haired printers, Mr. Arnold Bennett's vivid descriptions—of which there are many more in the novel, will revive half-pathetic and half-humorous memories. For the present generation, accustomed to up-to-date buildings and Caslon equipment, "Clayhanger" is a startling revelation of the makeshift conditions and crude apparatus of a bygone era. It is not among the latest of Mr. Bennett's multitudinous books, but is certainly one of the best in every way: for printers, the very best. It is published by Messrs. Methuen and Co.

蒸汽印刷 (完)

平電暴利問題로 府民一同蹶起

만일요구에응하지안흐면 소등동맹을하기로계획중

【평양】평양뎐긔회사(平壤電氣會社)에서는 십만부민을 무시하고횡포무도한 폭리를취한다하야 부민은협동궐긔하야 맹렬히 뎐긔료금인하(電氣値下)운동을하며일변으로평뎐의 비행을 비밀리에서묘사하야오든바 모뎐긔과장ㅣ던 동축광(上岡寬光)이 칠팔촉뎐광ㅣ지나지 못하다는 발표를듯든십만부민은 더욱이 격분하야비난이심하며 평뎐에서는밧지못한 뎐등료금을 다소료금을구하고 새로이사하여온 사람에게 바다오든바일본인흑천모(黑川某)에게만 일백사십원을 반환하엿다는사실이 폭로되야 무리한청구에내엇든 부민은 뒤를이여평뎐에 반환청구를 할터이라더라

◇消燈同盟

평뎐무정사건은 별항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이에대하야 만일부민의 요구를 불응하는동시에는 일제히소등동맹(消燈同盟)을단행할터이라더라(평양)

開城新春音樂

【개성】개성(開城)남부 엡윗청년회주최의 신춘가극 대회는 예뎡과가티 이십칠일 오후팔시부터 중앙회관강당에서 개최되엿는데 하재청(河載晟)씨의 개회사가 잇슨후 아름다운음악과 여러가지자미잇는가극은수만흔관중에게 만흔쾌락을주고 공전의성황속에옷을마치엿다더라(개성)

秘密結社와갓다고 『하자』會를解散

점점심하야가는디방경찰 사상단톄를해산명령개시

【함남】단천(端川)에는 운동선이정돈되지 못하고 미진에서방황하는중작년봄에대중운동의첫소리로 사회운동선상에 나선사상단톄『하자』회는그동안에대중을위하야만흔일을하야오든중지난 이십삼일에 청년문뎨로데이회 대강연회를 개최하얏든바당디 경찰 서장은 지난이십오일 오후한시에『하자』회원전부를 소환하여다가『하자』회는 회측도위원도업는 것을보아서 비밀결사로 인정할수잇슬뿐만아니라 회원이 다만사상연구만한다면 조흐나 그불온한사상을 고취하야 순량한민중에게낫븐사상을 선전하는것이니도저히 법률상에 용허(容許)치못할것이매 회원의 자발뎍으로해산하라는하매 이에대하야「하자회」는 불온사상을선뎐하는것이아니라 다만사상을 연구할이오 또강연회도 말하드래도사상을선전함이 아니오다만연구한것을발표하는동시에 자발뎍으로해산할필요가업다』는것을말한칙 서장은 직권으로 해산을명령한다고하엿다더라(단천)

朴烈公判

의연히방텽은금지한가운데 第四日續行

박렬(朴烈)사건의공판데사일은 삼월일일 오전아홉시반부터 전일과가티 공개를 금지한가운데 대심원대법뎡에서 개뎡하엿는데 상촌(上村)변호사의 변론이 잇슨후 뎡시반에 휴게하엿더라(동경뎐보)

赤露에서온救濟金 七萬圓의간곳은

북경으로간일본공산주의자 서의소위나아닌가고의심

석간긔보=로농로서아(勞農露西亞)에서 조선수해의연금(朝鮮水害義捐金)으로 일본 대판(大阪)에잇는농민조합본부(農民組合本部)에작년중 일화(日貨)약십만원을 보내엿든바 그중칠만원이엇지되엿는지행방이불명되얏슴으로농민조합의큰문뎨가 되야최근에 이르러는극비밀리에 묘사에 착수하엿든바뜻밧게동조합에 적화선전을목뎍하고 들어왓든 공산주의자대서십수남(大西十藏男) 이작년 십월중순경에 비밀히중국북경(北京)으로간사실이판명되야 그시긴과머서가 횡령하여가지고 도주한것이나아닌가하야농민조합에서는 안등국송(安藤國松)씨를묘사위원으로『모스크바』에파견하기로 결뎡하엿다는데당국에서는 이에대하야 표면상으로 묘사를핑계하고 로서아공산당과 련락이나 취하지안는가하야 경계의눈이 번득인다더라(동경뎐보)

非難밧는 抱川郡當局

수해구재금을 불공평히분배했다고

경성(京城)유하광풍(有賀光豐)씨가 주관하는 조선수해리재자구제회(朝鮮水害罹災者救濟會)에서온소위수해구제금을바든포천군

……게는 주지아니하고 약간생활이안될수업다고 비난과 원성이자자하다더라(포천)

一千五百哩의 海上無着水飛行

미국상항과하와이사이를 전번의실패를감하야실행

미국(米國)항공군은작년 가을에상항(桑港)과『하와이』간의약이천오백『마일』의해상을무착수(無着水)비행 하랴다가 실패하엿든바 다시이것을 긔어코관철식히고저하야 이계획을세운다는 보도가 일본 해군측에도착되엿다는데 이번의비행사령관은 작년가을과가티 「롯써ㅣ스」해군대좌로 단행키는삼월말경에 할계인데 그때에는그항로(航路)에다수의군함을배치하야만일을경계하게되엿다하며사용할 비행긔는 전번의 실패를돌아보아 전번회와 동일한회사에서 세밀한연구와주의로제작한것을쓰리라더라(동경뎐보)

龍川에出現한 時局標榜强盜

선전문까지휴대해

지난이십사일 오후 륙시경에평북룡천군 양하면 장송동(平北龍川郡楊下面長松洞)뎡인탁(鄭寅鐸)씨집에 권총가진수상한청년한명이 대담스러히 침입하야금품을 강탈도주 한사실이잇다는데 이제그자세한것을 탐문하건대 권긔인탁씨의 집에고용으로잇는사람이 그날해질때쯤하야밧게단여오노라니까엇던수상한청년한명이 나타나 주인을찻는대그거동이 하도수상 해보임으로곳안으로 드러가면서 대문에빗장을 질러굿게 걸엇든바이자는분개하야 즉시 그빗장 질는문을

……주재소원은 통톤본서와 부른자주재소원까지 총동출하야 즉시 이를매포로커로 려중이나 아직종적이 묘연하다더라(양시)

在京西洋婦人의 罹災民救濟事業

일월말까지이천호를구제

지난여름의 큰수재로 말미암아의식과주택의간곳이업게된리재민(罹災民)들의겨울을이롭위하야만흔보천을 다하야 동정금품을모집배부한서양부인들로조직된「서양부인구락부사회사업부」(西洋婦人俱樂部社會事業部)에서는지난일월말까지에 모집배부한금품이다음과갓다더라

◇同情金總額 五千一百八十七圓九十一錢

◇分給物品

이불 六百六件

衣服 八千二百六十一件

應急救濟米價 九百七十五圓

救濟戶數 一千九百十七戶

託送荷物盜難

텰도국은책임회피

함남삼호역(咸南三湖驛)에서는 근일에하조물도난(荷造物盜難)이빈빈하야 지난일월 이십팔일에는김용화(金鎔和)의경영하는조일운송뎜(朝日運送店)에서는 시가 삼십여원의 건명태(乾明太)한짝의도난을 당하얏스며또동업자(同業者)김여형(金汝衡)의경영하는 길성운송뎜(吉成運送店)에서는 지난십일월에또시가삼십여원의 건명태 한짝을도난당하엿슴으로 경찰당국(警察當局)에 도난계(盜難屆)까지하얏스나 아즉까지 범인을잡지못하얏는데 이케도난당한 두운송뎜(運送店)에서는도난당한하물(荷物)을 텰도국책임자(鐵道局責任者)에게 청구(請求)하얏스나 텰도국책임자(鐵道局責任者)는 락송(托送)한 하물(荷物)임도불구하고 자긔네의책임을 회피함으로운송업자(運送業者)와 텰도책임자(鐵道責任者)간에 분쟁이생기엿다더라

尺餘의長劍으로 家族五名刺殺

그러고또자긔도자살한 포학한일본설응사주지

原因은家庭不和인듯

일일오전여덜시삼십분경에일본기부시외 장량촌장량하반(岐阜市外長良村長良河畔)에잇는서본원사파(西本願寺派)설응사(雪應寺)라는절에서 그절주지로잇는 고하리검(高賀利劍)(三十)은자긔집의유물인길이약한자남짓한 일본갈로그의 숙부되는 고하선룡(高賀善龍)(六三)을한칼에찔러죽이고 그의실모와 임신(姙娠)중의 처정자(靜子)(二六)와 장녀 조자(照子)(四)와 맛차녀『이사요』(イサ子)등의다섯명을란자하야죽이고자긔는 그칼로배를갈라자살하엿다는데 그원인은 가뎡의불화인듯하다더라(기부뎐보)

採金中五名生埋

其中鑛夫二人慘死 금캐다가버럭이문허저

지난이십오일 오전 십일시경에충청남도 텬안군성환면 률금리압산록금광(忠淸南道天安郡成歡面栗金里山麓金鑛)에서광주팔목진수(八木辰守)외 네사람이 금을채굴하다가 별안간금광련정으로부터떳해천에금캐넌구멍에메엿던버력이문허저광주팔목진수는급속히뛰여나와살엇스나네사람은사생을알수업서그동리사람들은 대소동을 일우엇섯는데 사흘계속하야 묘사한바에의하건대 텬안군 성환면 률금리김금돌(天安郡成歡面栗金里金今乭)(三三)과동리정춘삼(同里鄭春三)(三九)과 성환면 왕림리 박영긔(成歡面旺林里朴永基)(三?)와률금리에 주소를둔일본인 산구길구랑(山口吉九郞)(三六)세광부는금잇는줄기를차지러다니던중 버럭이 문어저서 김금돌은 광주가뛰여나갈때보고따라뛰여나오다가 버럭에치여두참히 죽은시데를 동일오후열한시경에야발견한후그다음을보고뒤로물러서서다행히생섯던정춘삼은김금돌이가치어죽든사람의생사를알기위하야 틈을명을부지하엿슴으로 구원하야노코 나머지 두사람의생사는알수업게되엿는데이십칠일 오후두시 성환소방조(成歡消防組)가 출동하야 박영긔를 구해내고 산구길구랑은영영보이지 안어서 원광주을수

日人과合치안키로

조선인변호사회의결의

긔보=시내에잇는조선인변호사회와일본인변호사회의합동문뎨는 작년에 경성 디방법원장미(長尾)검사정이량편에 의론한일도잇섯고 그후 일본인변호사회에서먼저조선인측에대하야 무조건합동을 신립(申込)하엿다함은당시에 보도하엿거니와 이로인하야 조선인변호사회에서는 위원회를열고 토의하엿든바 총회를소집하야가지고 그석상에서결뎡하기로하야 지난 이십칠일오후네시부터식도원(食道園)에서림시총회를개최하고토의한결과 종래관계나 또는현재상태로보아 일본인변호사와 합동할필요가업다하야 합동치안키로 일치가결하엿는데그결과를상임위원에일임하고 경성디방법원장과검사정에게 보고하고 일본인변호사회에 회답하엿다는바 이에대한검사정의 태도는 여하할는지 매우흥미잇는 문뎨라하겟더라

襄陽에暴風

피해가적지안타

지난 이십삼일 오후두시부터 별안간 큰바람이일기시작하야 동오시까지 약세시간동안이나계속하야 불엇는데 오래동안양양(襄陽)에 문뎨가되엿든 공회당이작년칠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야 반가량이나 건축되엿든바 이번큰바람에 쓰러저서재목이다수히 부러졋스며 기타에도곳곳의피해가적지안타더라(양양)

問題되는 少年의死因

검시의결과별일이업다

진주대안동(晋州大安洞)일백삼십번디김회수(金會守)의장남김경수(金敬守)(一二)와대안동경성관(京城舘)료리뎜고인 최한명(崔漢明)(一五)과동이지난이십이일류가구향압헤서연(紙鳶)을날리다가 서로싸홈이되여권긔 김경수가최한명을 논두둑에 업허트리엿는데그길로최한명은병이들어이십팔일오전에사망하엿슴으로경찰서에서 검시하엿스나 아모상처는업고 그날싸홈할때에 별안간몸에고장이나지안핫는가인뎡한다더라(진주)

漂風漁船 無事歸還

죽은줄알엇다가 반가히서로맛나

함남신포(咸南新浦)에서는 지난이십일일 폭풍에 명태어업선한척이 표류되야 사오일동안소식이묘연하다고 배사람의가족과일반 친족들은 매우우려중에 싸이여 그날그시를지내오던차 지난이십륙일 오후한시경에 권긔표류하엿던 황양근어선 한척은요행 큰손해가업시 신포나루에배머리를 다이게 되엿스며 권부수족이얼엇스며 배승조원은 열한명중 두사람외에다가 세밤이(三晩)가량되는명태어싸지실엇다한다 표류선에덕박하자수천군중과그네들친족이일반이 모혀들어 일변우숙소리에 일변 울음소리에 매우성이오엇든바 배사다리에 매허잡을 이루모혀다가 다리중간이 떨허지면서그만 물속에싸진 사람도 잇섯는데 무사히도라온 선원의씨명은 다음과갓다더라

黃錫根 李秉瑞 李敬弼 張千年 金光喆 金浩彦 金斗基 金永熙 金化寅外永興人二名(신포)

艷書問題로 兩門의格鬪

싸홈은점점거칠모양

지난이십이일 김혼봄에 전남담양군고서면 성월리(全南潭陽郡古西面聲月里)에서는 김류량문중(金柳兩門中)에 중경상자가 지내인 일대격투가 일어낫다는데 이제그사실을 탐문한바에의하면 동리류만규(柳萬奎)(三?)가동리김병수(金炳洙)의며느리되는 최금순(崔錦順)인과부에게 연서(戀書)를보내여 유인코저하다가 발견되야김병수씨는분개함을 참지못하야 … 지라 소관주재소(所管駐在所)에서는 급거히 현장에 출장하야 진정을식혓스나 부상자측에서는 쌍방에서 다고소(告訴)를 데긔하야 싸홈은장차 거칠어질모양이라더라(창평)

貪婪無極한 地主의誅求

터가를매간에삼원식바다 嗷嗷하는淸城貧民

의주군청성진(義州郡淸城鎭)에거주하는 시민들은 원래농촌인 한적은 시가지로 생활상곤난이자심한데 더구나 근년에와서는 그시가디의 거의전부를 점령한디주는 집터세(基地稅)를 넘우도 례외로 매간에 금삼원이라는만흔 돈을 수취하며 몰하서미처지불치못하는 자에게는 차용증을바드며 그리하야 변리까지밧되 그도미처 지불치못하면 또다시 차압을 하느니 지불명령을하느니하야 별별수단으로 그처럼곤난한 시민들에게 못견듸게 굴므로 엇던사람은 집을팔고나 가게되고 또엇던사람은 그시원치 안흔 영업도부득이 뎡지할지경에 들엇슴으로 일반시민들은 그디주에 대하야비난이 자자하다는데 만일년간 한간에 삼원식이나밧으며 아무리 가난한사람이라도 약오간은다 쓰고잇스니 그날 버리하야 그날도 먹기가곤난한데 엇더케 십오원이라는 돈을 준비할수잇스리요 더구나가튼주소에 거주하야 생활상태를 목도하면서 그러한잔인한행동을 취함은 진실로사람의 감히 하기어려운 일이라하야원성이창텬하다더라

自己밥에양재물

안해를모함하고자

요사이 전북정읍군 립암면 천원리(全北井邑郡笠岩面川原里)김춘서(金春瑞)(三?)와 그안해 김성녀(金姓女)사이에 양잿물덩이를 누가내밥속에다 너헛느냐고 야단을 니르켜가지고 동면면사무소와 주재소까지 괴롭게하야 한참동안 여러사람의 주목을 끌어오다가 결국은 남편된자가 그안해를 모함하랴고 자작한것이 판명되엿다는데 그내용을듯건대 김춘서가 그면사(面使)로잇스면서 그안해 김성녀를 미워하야 엇더한수단으로든지 쫏차내랴고 자긔밥에다 양잿물두개를 무더노코 … 라(정읍)

本社主催의 第二回懸賞投票

每名一枚式 限하기로變更

현상투표란본의를 돌보아더욱엄격히 하고저그가티변경

조선인상업계의 진흥과 발뎐을 도모하며또 빈약한 상술(商術)의향상을도읍고저하야본사에서는 매삭한번식과뎨(課題)를내이는일반시민독자의현상투표를모집하는바 제이회로 시내 조선인상뎜중에『어느상뎜의 뎐두장식이데일 조흐냐?』라는뎨목아래삼월일일부터 동십일까지 한명이한상뎜에 한하야 투표를하기로 하얏스며 … 경긔도경찰부로부터 여러가지 … 또본래현상투표의 본의를 철뎌히 하고자 하야 한사람이 한상뎜에한하야한장밧게 더투표를 못하게 되엿고 그투표용지는 삼월일일부터 란외에 실린그용지를 사용하야 오는십일까지에 본사현상부에투표하기를바라는바이다

八年前巡査로在職時 遞傳夫殺害犯

근자에이르러사실발각 공범자한명만데포되여

본적을 충남당진군 면천면송학리(忠南唐津郡沔川面松鶴里)륙십삼번디에두고 현재 례산군례산면례산리(禮山郡禮山面禮山里)에거주하면서례산군축산조합(禮山郡畜産組合)에고원으로잇는인종환(印宗煥)(三?)은 지난음력십이월중에 병이잇서경성 총독부의원에 입원치료중이라고하더니 근자에이르러 례산경찰서에서는 극비밀에 부치고 … 대정구년칠월에 권긔인종환은 도순사를사면하고 대정십일년 사월분에 례산군축산조합에 고원노릇을 하든중인데 권긔인종환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요 인민측에서도 매우칭찬이자자하든바 일반관민은말하되 권긔인씨의 그와 가튼일이 잇다는말은 전연허설이라하나 … 어라하나 권긔인종환이가 당시 도순사로 잇슬때에 충남면천우편소(沔川郵便所)에가서 말하되 요새는금전이만히 왕래할때가아니냐고 물은후 그이튼날이 되어권긔우편소에서는 무삼의심이잇던지 그날금전을 아니보내고 다른우편물만 보내엿슴으로 금전에는 큰손해가업는 모양이며 …

公金을橫領하야 酌婦와同件逃走

면회계원으로잇든자가

충남론산군 양촌면(忠南論山郡陽村面)사무소에근무하는리상익(李相益)(二?)이란자는수일전에 공금오천여원을가지고 도망하엿다는데 그자세한 내막을드른즉 권긔리씨와 가티동면사무소에근무하든 백룡긔(白龍基)(三?)가 도박을 하야공금을소비한바 이일로 말미암어그면장김택현(金宅鉉)은분주히 도라다니며 그묘사를하노라고 분주히 서드는바람에자긔가동면회계원(會計員)이된것을 긔회로알고 그가티 공금을횡령하야가지고 론산읍텬주교압헤잇는 작부문춘선(文春仙)(二?)과가티 어데로 도망하엿다더라 … (언양)

小兒慘死

흙이무허저서

북청군북청면서리김덕준(北靑郡北靑面西里金德俊)씨의아들딸세살아는 그부모가 돈벌이로먼곳에가고 늙은조모의손에 길리든바 지난이십륙일오후에 그집압헤나가놀다가량덕수리조합(良德水利組合)공사중에 파내인 흙더미에서 흙이문허저서 비참히죽엇다더라(북청)

印度青年 新幕到着

강연회도성황

신막(新幕)유지일동의주최와본보지국후원으로 자전거로오십여명이 도십리밧게나가서인도청년이오는것을기다려 오후여섯시에 환영하야 만세삼창으로 량군을 마저당디 고려의원(高麗醫院)에서 석반을마치고 오후팔시에 공락좌(共樂座)에서 허용(許鎔)씨의소개로 강연회를 열엇는데 량군의의미깁고 강개무량한 강연이끗나자 계속하야 유지일동의 환영회로 좌석을 베풀고야 한시간가량 간담을 허치고담화하다가 동날한시에 폐회하얏는데 그이튼날 서흥(瑞興)으로도가지안흐면신막서하로를 유하고이일에는 신막을 떠나사리원(沙里院)으로 갈예뎡인바 사리원도착은량군의 행뎡을 자세히알수업스나 오후다섯시가량이될듯하더라(신막)

父子와母子가 便싸홈이되여

부모가중상

영덕군읍내화개동(盈德郡邑內華開洞)에잇는 리봉술(李鳳術)(四?) 리덕출(李德出)(二?) 두형데는 전일에도품행이 조치못하든바 지난일월삼십일저녁에 술이대취하야 서로말싸홈이 시작되야큰싸홈이되엿는데 그부친과 모친이말린다고 늘려애를쓰다가 에중상을당하엿스며 그어머니되는이는 가슴과머리를 마니다쳣는데 현금치료중이라하며 이케그내용을 듯건대 권긔리봉술의어머니는 그두아들을 다사랑함이오 아버지는 맛아들편인데양이의 편싸홈이되야 늙은부모가죽을번하엿다고 일반은 그형데의무도함을말한다더라(영덕)

赤良에乞人屍

얼어서죽엇다고

경남하동군적량면동리(慶南河東郡赤良面東里)심영택(沈英澤)씨의 통방아간에는 나이삼십오세가량된 남자가죽은것을 구일에 자긔통방아간에 무슨일이잇서가보즉 권긔와가티 밤을 어더다가 것헤노코 자는것가티누엇슴으로 두세번이나 일어나라고소리를질렷스나 아무소리가업는바부득이손을데여본즉 죽은것이분명함으로그참경을본심영택씨는 놀래여 즉시본면주재소에 보고한바 순사가현장에출장하야시톄를검사한결과얼어죽은것으로 판명되고 자의원적성명은알수업다더라(하동)

賭博常習犯

평양에서데포되어

음력정월이 되여서 그러한지평양부내에는 도박이 매우창행하는중인데 대동군 대동강면동대원리(大同郡大同江面東大院里)사백이십사번디에사는 김태섭(金泰燮)(三?)은지난이월이십칠일 오후세시경에 평양부신창리일백삼십번디과실도매상회(果實問屋日鮮商會)안에잇는리준성(李俊成)방에서놀음을하다가신창리경관파출소에서근무하는김형순(金炯淳)순사의손에데포되여 평양경찰서에 인치하고 취됴중이라는데 권긔김태섭은본시 대규모의 도박상습자로서 오래전부터 권긔장소에서 벳벳사람이모혀서 한번에걸어도 한사람이이원이상의 돈을걸고 노름을계속하야 왓다고하며 얼마전에도메천원의 돈을 엇엇다하며 차관리(?)에사는 윤○도(尹○道)란기생과살림까지하얏다는바 련루자도 만흔모양이며 그런부자 가운데에는 국롱부역상기라 과실문옥○○상뎜 주인 과상뎜에서 중개하는 사람들도 참가된듯하다는데 노름판에 동된돈은 적어도 삼사천원에달한듯하다더라(평양)

問題만흔 安州貿易會社

위임경영문뎨원만히타협되얏다

긔보한바와가티 안주무역주식회사는 주주사이에 의견이모다 소격되야 위임경영(委任經營)을주장하는 일파와 영업종목(營業種目)의 뎡관변경(定款變更)을주장하는일파가 서로서로 자긔의주장을세우기위하야문뎨를이르키며 나종에는해산(解散)설까지 세상에 뎐하게되매 일반식자의 개탄하는바도만히잇섯든바 지난이십칠일에소집된그회사 림시총회에서 대주주 김영로(金瀅櫓)씨의 량집데안(兩執提案)이든 위임경영안(委任經營案)에관한일관(款)을철회(撤回)함에 일치하야 주주의 영업변경안도 부결되야 이권뎡관대로 사업을지행하기로 원만히일치가결된동시에역원변경도 아래와가티 선뎡되얏다고한다(안주)

◇新役員

取締役 金瀅植 金瀅櫓 韓大勵

監査役 文昱楠 梁鎭福

憂慮되는 安州染病

환자가증가 사망자속출

긔보=안주(安州)의전염병환자가 날로늘어 신안주면환자구명이외에 새로환자칠명이 증가되야 그중에서신안주면에만 삼명이사망하얏스며 인구조밀한 안주읍내에도 지난이십칠일 부터소관경찰서에서 검병묘사를 하는중 현재발견된 환자가륙칠명이요 이압흐로 묘사가마치기까지얼마나 더발견될는지도 상상할수업고가속도(加速度)로만연되는 형세는자못 맹렬함으로경찰서원으로 조직된묘사반(調査班)과소독부(消毒部)의 이부대(二部隊)는 봄철수야하고 노력중이며또한만일을념려하야평양(平壤)공의(公醫)의 협력을어더가지고 삼월일일부터 안주인구에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할터이며 환자가잇든집과 갓가이잇는 우물이개소의 사용을금지하는등 안주읍내의 인심은모다 불안한속에잇는중이라더라

避病舍는滿員

안주피병사(安州避病舍)는팔간

雙方이맛告訴

한편은강간미수로 한편구타상해죄로

전북정읍군리평면 청양리(全北井邑郡梨坪面靑陽里)박남진(朴南鎭)(四三)은 작년음십이월경에동리 송판봉(宋判鳳)의안해 김후덕(金厚德)(一九)을 강간코자

휘파람

▲근래각디방에서보통학교교원들이 학생에게대하야 조치 못한말을하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아푸게하야▲문뎨가생기는곳이 한두곳이아니더니포천공립학교선생님본녀자교사는 시간에 학생들이떠든다고『너희들은야만이다』라고하얏다나▲어린이를 나몰할뻔예엇소 공부를하야 가지고 남을가르치는 책임을가진신분으로 말씨가그 모양이라면 고마웁게 생각할내야할수업는일이 아니냐

어린子息을업은 夫婦四名自殺未遂

가뎡불화로어린자식과 식구네명이뎐차에치어

일일오전아홉시경에평양(平壤)구시가(舊市街)에서리모(李某)부부는 각각어린아이를 업은채로뎐차에 치어중상을 당하엿다는데 원인은가뎡불화로 자살코자하는것을 그의 남편이 말리다가 그와가티된것이라하며생명이위독하다더라

少婦自縊

시집는가난하고 친뎡선본을안줘

경남울산군 두동면 구미리당산

商品化한女性 爭奪戰으로活劇

한편은양모라고차저가고자 한편은아비에게삿다고불응

지난이월 이십이일 전남령광군법성포(全南靈光郡法聖浦)최채섭(崔在燮)의 려관에서는 십여명의 유두분면(油頭粉面)의 계집들이 엇던어린녀성 한아를에워싸고 팔을쇠집어다리며 가자거니 못가겟다느니하야 일대활극을 연출하엿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들은즉 목포신창동정성백(木浦新昌洞鄭成伯)이란자가 자긔딸춘운(春雲)이가 세살때에 청배은 춘운의모(母) 고대아(高大阿)를

모처에

팔엇섯다 그때부터 어린이의 아름이잇더니 어려서부터어머니 품속에안겨서 세살적부터 인생의 파란을 밟기시작하엿다 이러구러 어느듯 춘운의 나이

압흐로

나어갈수업시 그리 …

불합리

요 결하얏는데 이 세상은 춘운으로 하여금 엇던 파란풍상을 겪그면서라도 따뜻한 어머니 품속에 잇게하지 못하야 대정십일년십일월이십삼일에 춘운의어미는 이세상의 가지가지 풍상과고통을 다격거가며 사랑하는딸을 이제까지는 길러왓스나 이제부터는 다시한거름도더

떠나게

되고말엇다 아 이것이 운명의악희이냐?! 제도의죄악이냐?! 담양집은 춘운을 바로 광주예기조합(光州藝妓組合)에보내여 동기(童妓)가 되게 하야 고사리가튼어린손으로북채를배호며 양어머니에게 장고채를 잡고아춤저녁으로 가무를부치고그날그날살어가는데하는 뎡성백이가와서 내가 춘운의아비인즉 내딸을 내노흐라고

합으로

담양집은 위탁을 바들때에 아비는 죽고업다고하엿든데 이제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비라고자칭한다고내여줄수는 업다고 거절하엿스면 춘운을 당한뎡성백은 엇지하엿든지 돌로유인(誘引)하여 데려가고모든되풀렷오다가 작년 구월분에 이르러광주모료리집에 지금 여회가 잇스니 속히오라

담양집

은춘운을차지려고 고심하든중 령광읍내 류일(靈光邑內柳一)이란사람에게서 춘운이가 법성포추월관에 잇다는 말을듣고 곳법성포로쫏차가서 춘운을맛나서 춘운을가자하니 춘운은 따러나섯다 그러나 료리집주인 뎡텰년은돈을주고 산춘운을 그리용이하게 내줄리가 업다 그리하야 뎡텰년은

자긔집

재집십여명을 다 담양집이류숙(留宿)하는려관에보내여그와가튼활극을연출하엿다고한다